든든 마음

2023년 10월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듣는 마음" 책자 소개

듣는 마음을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축복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자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아침 예배와 중보기도회, 그리고 저녁기도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교회가 예배와 말씀읽기를 통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4
오늘의 묵상 말씀 및 말씀 노트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128
1과 마귀를 대적하라
2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3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4과 불신앙, 불순종의 시대의 한 여인의 믿음

선교사 열전 ·136
존 헤론 선교사(John W. Heron 1856~1890)
(한국체류 1885-1890)(2)

01 주일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 열왕기상3 ☐ 에베소서1 ☐ 에스겔34 ☐ 시편83-84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다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에베소서 1장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다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스겔 34장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11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6**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시편 84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1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의 정략결혼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으며 아직 성전이 없었으므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1~3절)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 원하는 것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라고 답변함으로써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부와 영광까지 약속하십니다. (4~15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자신이 아기의 엄마임을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판결에서 잘 드러납니다.(16~27절)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으며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2절)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 지식을 통해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에스겔 34장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스라엘 목자들(=제사장, 선지자, 왕)의 죄를 지적하십니다.(1~4절) 양을 이용해 이익만 챙기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양들이 흩어져 방황하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5~8절) 하나님은 직접 양들을 찾을 것이며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9~16절) 하나님은 한 구원자(=다윗)를 통해 양을 돌보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83-84편

(83편) 이스라엘은 주위나라의 대적들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대적들을 차례로 물리치셨던 역사를 소환하며 그때처럼 지금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84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본 시인은 주의 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1~4절)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으며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2 월요일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 열왕기상4-5 ☐ 에베소서2 ☐ 에스겔35 ☐ 시편85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뜻을 세우시고, 예비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퉁잇 돌이 되셔서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5장 다윗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

5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삯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에베소서 2장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스겔 35장 내가 황폐하게 하여 끊을지라

5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6** 그러므로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7** 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8**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네 여러 멧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9**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시편 85편 하나님의 의가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7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12**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열왕기상 4-5장

(4장)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풍요로웠고 그의 지혜는 주변 나라들에게 널리 전해졌습니다.(20~34절)
(5장)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두로 왕 히람과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레바논의 백향목)와 목재를 다루는 기술자들을 지원받게 됩니다.(1~12절)

에베소서 2장

본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였습니다.(1~3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니 오직 은혜요 선물입니다.(4~9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었던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11~13절)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교와 달리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은 동등한 성도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합니다.(19절)

에스겔 35장

야곱과 에서가 갈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야곱의 후손)과 에돔(=에서의 후손)은 대대로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 목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34장)과 함께 에스겔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에돔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1~9절)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했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시편 85편

공동체 애가로서 고난 받은 공동체의 간구입니다. 내용상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2~3절) 그때처럼 지금도 진노를 거두시고 인자를 나타내시길 간구합니다.(4~7절) 시인은 머지않아 하나님이 기쁜 소식(=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 맞추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들려주실 것을 기 대합니다.(8-10절)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인데 이러한 구원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3 화요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 열왕기상6 ☐ 에베소서3 ☐ 에스겔36 ☐ 시편86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는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열왕기상 6장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루리라

11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에베소서 3장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신다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스겔 36장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행하게 하리니

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시편 86편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10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1**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열왕기상 6장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구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채석 현장에서 돌을 다듬은 후 옮겨 왔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2~10절) 외관이 완성된 후 성 전 내부를 장식하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14~22절)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두 그룹이 세워졌습니다.(23-28절) 그룹(히: 케루빔)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갇힌 자(=매인 자)된 바울은 실제로 옥에 갇힌 자이기도 합니다.(1절)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해 바울은 비밀(=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2~9절)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미리 예정하신 것으로 세상은 환난으로 응답하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리십니다.

에스겔 36장

우상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힘없고 유약한 신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16~20절) 그러나 하나님은 실추된 이름과 명예를 스스로 되찾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24~27절)

시편 86편

개인 탄원시로 기도자인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난과 궁핍, 환난 날로 표현합니다.(17절) 환난 날은 구체적으로 대적들에 둘러싸여 공격받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난과 궁핍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가난하다기보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합니다. 시인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인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은총의 표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4 야긴과 보아스

수요일

☐ 열왕기상7 ☐ 에베소서4 ☐ 에스겔37 ☐ 시편87-88

야긴과 보아스 성전문의 두 기둥의 이름으로 그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7장 야긴과 보아스

21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에베소서 4장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다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스겔 37장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다

1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시편 87편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2** 야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6**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의 왕궁은 긴 공사기간과 최고급 목재와 석재 사용, 고급 기술자 히람의 섭외 등은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하고 부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전 앞에 세운 두 놋 기둥 야긴(=그가 세우다)과 보아스(=그에게 힘이 있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력한 왕조임을 상징합니다. 한편 히람은 왕궁뿐만 아니라 바다(=제사장이 손을 씻는 원형 물통), 받침 수레(=물두멍 운반용 수레), 물두멍, 성전의 각종 놋기구와 금 기구, 성전 곳간 등 성전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도 한 분, 주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이시기에 교회의 하나됨은 확고한 하나님의 뜻임을 전합니다. 또 각양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름으로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들은 이방인처럼 살 수 없으며, 율법 준수가 구원의 요소라고 믿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온 사방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십니다.(1~3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라고 명령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이 붙고 생기가 공급되어 살아 있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4~10절) 마른 뼈 환상은 1차적으로는 포로귀환을,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시편 87-88편

(87편)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은 이미 패망하고 성전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88편) 오랜 기간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시편으로 밤낮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상황은 재난과 죽음 그 자체입니다. 시인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것이며 계속 간구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5 목요일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 열왕기상8 ☐ 에베소서5 ☐ 에스겔38 ☐ 시편89

언약궤를 가지고 지성소로 메어 들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곡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은 주의 얼굴 빛 가운데서 다닐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7**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 곳에 있으며 **9**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야훼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11**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8장 이방 사람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다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시편 89편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5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16**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17**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18**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21**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2**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23**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4**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열왕기상 8장

성전이 완공되어 솔로몬은 성전을 두고서 기도합니다. 먼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성전을 향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4가지 상황을 가정하며 하나님이 공의와 용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향한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거룩한 전쟁에 나아갈 때에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건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1~2절) 그것은 곧 정결하지 않은 것을 멀리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며, 과거에 행했던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3~14절) 복음의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되어 남편은 가부장적인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스겔 38장

마곡 땅의 로스, 메섹, 두발 백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항해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며 곡이 그들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1~7절) 하나님은 이미 마곡을 대적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3절) 마곡의 연합군은 모든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8~16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갈고리에 꿰어 있는 상태입니다.(4절) 결국 하나님은 마곡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17~23절)

시편 89편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언약(삼하7:13-16)을 기억하사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고난 받는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1~4절) 하늘위에서 비할 데 없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은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대적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 인자와 진실함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며,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은 후대에도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6 진리로 허리 띠를 띠라

금요일

☐ 열왕기상9 ☐ 에베소서6 ☐ 에스겔39 ☐ 시편90

신앙은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합니다.

열왕기상 9장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라

1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 야훼께서 전에 기
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 야훼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
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
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
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
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
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
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
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
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스겔 39장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5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
라 **26**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27** 내
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
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
을 나타낼 때라 **28**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
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
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야훼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야훼의 말씀이
니라

시편 90편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
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
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
서 **17**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열왕기상 9장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왕조가 지속될 것이며 불순종할 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1~9절) 솔로몬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하솔과 므깃도를 비롯한 요새를 건축하고 이집트에서 온 왕비를 위한 궁전도 건축합니다. (15~25절) 해상 무역도 활성화됩니다.(26~28절) 그러나 연이은 토목공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부모에 대한 순종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은 영적 차원이며 부모의 자녀 교육 역시 윤리적 차원을 넘은 영적 차원(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1~4절) 종과 주인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육체의 상전에 대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하며 주인 역시 자신의 실제 주인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종에 대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곧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를 입어야 합니다.

에스겔 39장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위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나무(=활, 화살, 방패, 몽둥이 등)로 만든 적들의 무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땔감이 될 것이며 적들의 시신은 들짐승의 잔치음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8~20절)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 며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잠시동안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 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21~24절)

시편 90편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끝이 있으며 영원할 것 같은 고난도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며 인생은 덧없습니다.(3~6절)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1~2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탄식하는 가운데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2절) 시인은 죄에 대해 탄식하는 공동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구합니다. (13~17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7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토요일

☐ 열왕기상10 ☐ 빌립보서1 ☐ 에스겔40 ☐ 시편91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가 전해집니다. 이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복이라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높입니다. 바울은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에스겔에게는 환상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에게 본 것을 다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6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9**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야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야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10** 이에 그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에스겔 40장 너는 본 것을 전할지어다

1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시편 91편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5**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열왕기상 10장

솔로몬 왕국의 전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스바(=지금의 아라비아반도 남 단 예멘지역으로 추정) 여왕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하여 교역을 청할 정도로 그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1~13절) 활발한 교역으로 인한 풍족한 재정으로 1650kg의 금으로 만든 200개의 방패, 상아와 금으로 만든 보좌 그리고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기병을 소유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14~29절)

빌립보서 1장

빌립보는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한 도시이며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 와 중에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게 된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행 16장) 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시위대 안과 밖의 사람들에 게 복음을 증거 할 수 있고, 로마에는 바울을 의식하며 경쟁심과 이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생겨났으니 이러나저러나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고 바울은 말합니다.(12~18절)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0장

유다의 패망으로 인해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환상을 보여 주십니다.(1~4절)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듯이 성전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5~49절) 하나님의 사자는 성전 구조물들의 두께, 너비,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매우 정교하면서도 웅장합니다. 성전의 거대한 규모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냅니다.

시편 91편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온 시인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12절) 이에 대하여 제사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축복을 선언합니다.(3~13절) 하나님은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로 만족케 하십니다.(14~1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8 주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 열왕기상11 ☐ 빌립보서2 ☐ 에스겔41 ☐ 시편92-93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납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당부합니다. 한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까지, 예수의 마음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다

9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빌립보서 2장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스겔 41장 지성소에 이르다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2**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4**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시편 93편 야훼께서 다스리시다

1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3**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4**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5**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열왕기상 11장

많은 것을 소유한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정략결혼으로 아내가 된 이방여인들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1~13절) 하나님은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으며 수리아(=지금의 시리 아)왕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14~25절)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나 여로보암이 오랜 토목공사로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을 선동해 세력을 확장했는데 무려 10개 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26~39절)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의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5~8절)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9~11절)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은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12~13절)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에스겔 41장

40장에 이어 성전에 대한 측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 즉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특히 지성소를 보여 주십니다.(1~26절) 대제사장이 아닌 에스겔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를 안내하는 천사만이 들어갑니다.(3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92-93편

(92편) 93편과 함께 매일 회당에서 낭송했다고 전해지는 일곱 편의 시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지존자)와 그의 인자와 성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마땅한 이유입니다.(1~3절)
(93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견고하며 그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12절) 대적들이 큰물처럼 삼킬 듯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34절) 그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5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09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

월요일

☐ 열왕기상12 ☐ 빌립보서3 ☐ 에스겔42 ☐ 시편94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 지파들이 배반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생각이 아닌 징벌이라도 주로부터 난 것을 받는 자가 복됩니다.

열왕기상 12장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2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십팔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22**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 야훼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빌립보서 3장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에스겔 42장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시다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7**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시편 94편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을 교훈하심을 받는 자

8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0**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은 오랜 토목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으니 이를 가볍게 해달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이로 인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로보암을 새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12~20절)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유다의 영역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제작하고 산당을 건축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21~33절)

빌립보서 3장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그리스도께 잡힌바 된 그것(=성화와 복음증거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12~16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성화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과 하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17~21절) 도덕과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에스겔 42장

성전에 관한 측량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제물을 보관하며 의복을 갈아입는 방들과(1~14절) 성전 안과 밖을 구별하는 외벽 담장을 측량함으로써 마치게 됩니다.(15~20절) 출애굽기의 성막기사와 비교하면 성막은 설계 이후 제작되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 성전은 건물 측량 기록만 있고 실제 건축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94편

억울함과 원통함이 극에 달한 시인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히 호소합니다.(1~2절)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며 심지어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있는데 심판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3~7절)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며(8-11절)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평안케 하십니다.(12~15절) 악인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악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십니다.(16~23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0 구원의 자리

화요일

☐ 열왕기상13 ☐ 빌립보서4 ☐ 에스겔43 ☐ 시편95-96

벧엘의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제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말한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여로보암의 손은 말라버렸고, 말씀대로 제단은 갈라졌습니다. 반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열왕기상 13장 벧엘의 제단이 갈라지다

1 보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4**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 하나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에스겔 43장 이는 내 보좌의 처소라

1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3**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 야훼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6**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7**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시편 95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1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열왕기상 13장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은 "훗날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 산당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산당을 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징조로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1~3절) 그를 체포하려던 여로보암은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다가 실패합니다.(4~10절)

빌립보서 4장

바울은 염려 대신 감사의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하며 기도생활에 대해서도 권합니다.(67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으로 참됨, 경건함, 의, 정결, 사랑받음, 칭찬(=좋은 평판), 덕(=윤리)과 기림(=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음)등 8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에게 능력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음을 말합니다.(11~13절)

에스겔 43장

완성된 에스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진정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 회개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제단 위치는 성막 문 앞이었지만 에스겔 성전에선 중심입니다. 제단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공동체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95-96편

(95편) 시인은 공동체를 찬양으로 초청합니다.(1~2절) 찬양의 이유는 그가 모든 신들 위의 가장 크시기 때문이며 땅과 바다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96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1~3절) 창조주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거룩하며 정결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1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수요일

☐ 열왕기상14 ☐ 골로새서1 ☐ 에스겔44 ☐ 시편97-98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자라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독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는 가운데서도 성소의 직분을 지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노래합니다.

열왕기상 14장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라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22**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23**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24**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골로새서 1장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스겔 44장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15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17**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 옷을 입을 것이니 **18** 가는 베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9** 그들이 바깥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시편 97편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7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8** 야훼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9**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10**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2** 의인이여 너희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열왕기상 14장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던 여로보암의 가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1절) 아들 아비야가 병든 것입니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해 책망하며 그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가 죽게 될 것을 선언하였는데 가장 먼저 아비야에게 적용되었습니다.(2~20절) 한편 유다의 르호보암 역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남색(=남자창기)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21~24절)

골로새서 1장

바울은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 의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운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인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1~8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합당하게 행하기 원하며 특히 선한 열매를 맺고 자라가며 능력을 힘입고 오래 참으며 감사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9~12절) 성도는 죄 사함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13~14절)

에스겔 44장

야훼께서 성전 동문으로 들어가신 후 동문은 닫히게 되는데 이는 동문을 통해 들어 오신 야훼의 영광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1~3절) 성전에는 야훼의 영광이 가득했으며(4~8절) 이방인 성전 종사자들은 출입이 금지되고 레위인의 역할은 축소됩니다.(914절) 거룩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이 타락했을 때에도 신앙을 지킨 사독계열 제사장을 구별하십니다.(15~22절)

시편 97-98편

(97편) 야훼의 통치를 모든 피조물들은 기뻐합니다.(1절) 의와 공평에 기초한 하나님의 통치에 모든 피조세계에 골고루 나타납니다.(2~6절) 온 땅 위의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악인에게서 건지십니다.(7~12절)

(98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1~3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4~9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2 목요일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 열왕기상15 ☐ 골로새서2 ☐ 에스겔45 ☐ 시편99-101

그는 거룩하신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사 왕은 비록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다

9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앞에 온전하였으며 **15**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야훼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골로새서 2 장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스겔 45장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18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9**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20** 그 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시편 99편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1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야훼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2** 시온에 계시는 야훼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3**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4**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5**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6**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야훼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7** 야훼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8**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9**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열왕기상 15장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유다왕국의 2대 왕이 된 아비얌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나라를 지켜 주셨습니다.(1~5절) 재위기간 동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삼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68절) 아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사는 비록 산당을 없애진 못했지만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었습니다.(9~24절)

골로새서 2장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교회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5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골로새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다른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6~10절) 그리스도인은 몸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 할례(=그리스도와 연합)를 받았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11~15절) 바울은 8절에서 언급했던 복음에서 벗어난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16~23절)

에스겔 45장

44장에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은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여 성소, 제사장의 집, 레위인의 거주지, 왕의 소유지 등으로 분배하십니다.(1~8절) 특이한 것은 왕이라 해도 백성의 소유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군주는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며 백성들이 절기와 제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9-25절)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왕(=예수 그리스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시편 99-101편

(99편)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지킨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 시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6~9절)
(100편) '야훼를 찬송할 것'을 명령하는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기뻐하시므로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1~2절)
(101편) 하나님은 중상모략하는 자와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 공의로 치리할 것이며 말씀 앞에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5~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3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금요일

☐ 열왕기상16 ☐ 골로새서3 ☐ 에스겔46 ☐ 시편102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배반하여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군주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며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다

8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9**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10**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이십칠년이라 **11**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야훼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13**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스겔 46장 군주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1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2**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야훼 앞에 예배할 것이며 **4** 안식일에 군주가 야훼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라 **5**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힌 씩이니라

시편 102편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다

12 야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 이에 뭇 나라가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 야훼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8**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야훼를 찬양하리로다

열왕기상 16장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고 왕이 된 바아사 또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1~4절) 하나님은 바아사의 아들 엘라의 재위 2년차에 시므리를 통해 바아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5~14절) 시므리의 반역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오므리를 새로운 왕으로 세운 후 수도를 장악함으로써 시므리의 반역은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15~20절) 오므리 왕조가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오므리와 아합이 연이어 통치하게 됩니다.(21~33절)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위의 것(=하나님 나라와 의)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1~3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4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땅의 지체(=육신의 정욕)를 제어하기 위해 매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5~11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인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12~17절)

에스겔 46장

하나님이 세우실 군주는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이 야훼께 정한 절기와 매일의 제사를 드리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1~5절) 또한 자신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땅을 소유해야 하며, 백성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16-18절)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거룩함도 지켜지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19~24절)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며 예배 때나 일상에서나 늘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2편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개인 탄원시)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1~2절)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괴로운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호소합니다.(3~7절) 원수들의 공격에서 피할 길이 없는 시인은 재와 눈물이 그의 양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단임을 성찰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묵상합니다.(12~1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4 토요일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리라

□ 열왕기상17 □ 골로새서4 □ 에스겔47 □ 시편103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으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은혜 가운데 말을 하여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말씀)로 인하여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러 진실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17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9**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골로새서 4장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5**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에스겔 47장 이 흘러 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시편 103편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야훼의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른다

15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17**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열왕기상 17장

영적 암흑기였던 아합왕 시절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합니다.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갑니다.(1~7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으로 이동한 엘리야는 한 궁핍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8~16절)

골로새서 4장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1절) 바울은 기도에 대해 권면하면 서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2~4절) 불신자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과 신중한 말로 복음을 드러내야 합니다.(5~6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하면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1차 전도여행 때 무단으로 선교지를 이탈했던 마가를 따뜻하게 환대해 줄 것과 교역자인 아킵보에게 교회를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편지를 마칩니다.(7~18절)

에스겔 47장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바깥으로 흐르는 모습이 묘사됩니다.(1~2절) 물은 점점 차올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생명의 물이 흐르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게 됩니다.(3~12절)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자 땅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13~14절) 하나님이 설정하신 동서남북 땅의 경계 안에서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데 특이한 점은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땅이 분배된다는 것입니다.(15~23절)

시편 103편

시인은 야훼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택을 열거하며 자기의 영혼에게 야훼를 송축할 것을 명령합니다.(1~5절) 무엇보다 야훼를 송축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성품(=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 하심, 인자 등)입니다.(6~12절) 먼지와 같고 들의 꽃이나 풀과 같은 유한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긍휼과 인자를 베푸십니다.(13~18절)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해야 합니다.(19-22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5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주일

☐ 열왕기상18 ☐ 데살로니가전서1 ☐ 에스겔48 ☐ 시편104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었을 때, 큰 비 소리가 소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복음 또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며, 큰 확신 가운데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큰 비가 내리는지라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42**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44**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46**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에스겔 48장 예물로 드릴 땅

8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 곧 너희가 야훼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10**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야훼의 성소가 있게 하고 **11**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시편 104편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야훼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아합왕 시절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왕을 만난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요청합니다.(16~20절) 야훼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완벽하게 승리하였고 내친김에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처형합니다.(21~40절) 드디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41~4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 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1~4절)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각처에 소문이 났습니다.(5~8절)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9~10절)

에스겔 48장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데 거룩한 영역의 중심에는 성전과 제사장 거주지역이 있고 그 위쪽은 레위인 거주지역, 아래쪽은 예루살렘이 위치합니다.(8~20절) 12지파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들어와 있으며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야훼 삼마"('야훼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뜻, 35절)입니다. 하 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시편 104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야훼를 찬양하는 시 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 통용되던 신화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절대주권을 드러냅니다. 야훼는 강력한 주권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셨습니다.(5~9절) 특히 하나님은 생명과 직결된 물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10~23절) 모든 생명체가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해 있으니 피조 세계가 야훼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25~35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6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월요일

☐ 열왕기상19 ☐ 데살로니가전서2 ☐ 다니엘1 ☐ 시편105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로 인해,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돈을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 비방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뜻을 정하며 위험을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9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52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다니엘 1장 당신이 보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시편 105편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하나님의 언약

7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열왕기상 19장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가 있었지만 바알신앙의 열렬한 추종자인 왕비 이세벨로 인해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받습니다.(12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유대의 브엘세바를 거쳐 다시 사십 주 사십 야를 이동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3~10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선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 주십니다.(11~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며 훈계했습니다.(10~12절)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동족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13~14절) 핍박자들은 그들의 죄가 채워지게 되면 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15~16절) 좀처럼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과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입니다.(17~20절)

다니엘 1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습득했지만 신앙만큼은 굳건히 지켰습니다. 뜻을 정하여 바벨론의 제의 때 사용되었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8~10절) 용기를 내어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는데 하나님은 환관장을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11~16절) 열흘간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으며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알게 하셔서 바벨론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17~21절)

시편 105편

105편과 106편은 역사 서사시입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에서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시인은 야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며 선포하라고 외칩니다.(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여정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7~15절) 고대 근동의 대기근에서 구원하시고자 한명(=요셉)을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라의 지혜자로 삼으셨고 그로 인하여 야곱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기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16~23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7 화요일 |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알리라

☐ 열왕기상20 ☐ 데살로니가전서3 ☐ 다니엘2 ☐ 시편106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의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이 멸하기로한 아람 왕을 놓아주고 그와 조약을 맺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으며,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0장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는 아합 왕

31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32** 그들이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3**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34**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1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다니엘 2장 하늘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39**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시편 106편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7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20장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시리아)왕 벤하닷은 아합왕과의 협상을 시도하는데 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고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합니다.(1~12절) 북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한 한 선지자의 제안대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약 7,000여명의 군대가 방심하고 있던 아람 군대를 기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13~21절) 아람군은 다시 재정비하여 2차 공격을 가해 오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22~30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아테네(=아덴)에 머물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로부터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건실하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1~6절)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이자 위로이며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7~8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굳건하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9~13절)

다니엘 2장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함께 계시해주십니다.(14~23절)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왕의 꿈을 정확히 말하고 해석합니다.(24~49절) 금 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주셨으며 은(=페르시아)과 놋(=헬라 곧 알렉산더 제국 및 후속 4왕국) 시대를 지나 쇠와 진흙(=로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쇠와 놋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편 106편

시인은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며 은혜와 구원, 기쁨을 구합니다.(1~5절)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으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7~12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두고서 욕심을 부렸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 대항 하였으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13~23절)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 당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징벌의 기간이 끝나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40~4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8 수요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 열왕기상21 ☐ 데살로니가전서4 ☐ 다니엘3 ☐ 시편107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겸비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설령 자신을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열왕기상 21장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야훼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 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다니엘 3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시편 107편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1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열왕기상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 때부터 조상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도 함부로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5~16절) 하나님은 살인까지 저지르며 남의 땅을 가로챈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17~2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1~2절) 첫째는 '거룩하라'입니다.(3~8절) 곧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만을 사랑하고 정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9~10절) 그들은 이미 사랑의 수고로 칭찬을 받았지만(1:3)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면 성실하라'입니다.(11~12절)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일에 소홀한 어떤 이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28미터 높이의 금 신상을 세운 후 낙성식에 참여 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1~7절) 그러나 바벨론의 지방 관원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없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발을 당합니다.(8~12절) 왕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13~23절)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죽지 않는 그들을 보고 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그들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24~30절)

시편 107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107편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시인은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1~3절) 광야와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평온함과 소망으로 인도하셨습니다.(23~32절) 하나님은 언제든지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33~39 절) 그러므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는 마음이 정직한 자,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40~43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19 주의 날이 임하리니

목요일

☐ 열왕기상22 ☐ 데살로니가전서5 ☐ 다니엘4 ☐ 시편108-109

주의 날은 밤에 도둑 같이 이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빛의 아들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조차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그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다윗은 주의 날을 소망하며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의 죽음

37 왕이 이미 죽으매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야훼께서 하신 말씀
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의 날이 밤에 이를 줄 아는 빛의 아들들의 삶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
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
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
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
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
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
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 예수께
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
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
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니엘 4장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

34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
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
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
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
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
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
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
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
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
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
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
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시편 108편 만민 중에서 주를 찬양하기 원하는 다윗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4 주의 인자하
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
다 5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열왕기상 22장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1~4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는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아합이 불러 모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합니다.(5~12절) 유다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며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이었으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41~5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늘 깨어있어 어둠에 있지 않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기다려 왔기에 그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날처럼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1~5절) 성도는 낮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6~11절) 성도는 공동체의 리더를 존중하고 영적으로 취약한 자를 돌보며, 선을 따르고 인내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12~18절) 마지막으로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19~28절)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체험이 담긴 편지 형식의 조서를 내립니다.(1~3절)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으며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석해냈습니다.(4~9절) 왕은 꿈의 내용을 서술합니다.(10~18절) 다니엘이 풀어낸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극단적인 내용입니다.(19~27절) 결국 예언대로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은 다시 그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28~37절)

시편 108-109편

(108편) 108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를 배경으로 제사 때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겠다는 시인의 결단(1~5절),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6~9절),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간구(10~1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9편) '저주시'이면서 '개인 탄식시'로 평가받고 있는 109편에서 시인은 원수들을 향해 무서운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여러 가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면서 대적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땅에서 끊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1~20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0 금요일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 열왕기하1 ☐ 데살로니가후서1 ☐ 다니엘5 ☐ 시편110-111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이 병이 나을지를 에그론에 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를 반문하시며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벨사살 왕 역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인간이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보라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3**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 5장 하나님을 다 알고도 알지도 못 하는 신상들을 찬양한 벨사살 왕

1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시편 110편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1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 야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던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우상에게 물어볼 것을 지시합니다.(1~2절) 아하시야는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 질병이 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아하시야는 회개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합니다.(3~8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본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약 3개월 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풍성한 사랑, 박해와 환난에 대한 인내에 대해 여러 교회에 자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1~4절)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박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표식으로 그들은 주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핍박자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5~10절)

다니엘 5장

강성했던 바벨론이 급격히 쇠락하게 된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벨사살 앞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는 이가 없어 번민하게 됩니다.(1~9절) 그러다가 다니엘은 벽에 나타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예언합니다.(24~29절)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대(=메디아)의 다리오(= 다리우스)에 의해 멸망당합니다.(30절)

시편 110-111편

(110편) 일반적으로 제왕시로 분류되는 이 시는 메시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을 설명하십니다.(마 22:41~46)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왕을 앉게 하실 것입니다.(1절) 즉 왕(=메시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왕에게는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백성들이 따를 것입니다.(2~6절)

(111편) 시인은 회중들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선포합니다.(1절) 회중들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2-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1 토요일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 열왕기하2 ☐ 데살로니가후서2 ☐ 다니엘6 ☐ 시편112-113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시는 것을 알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며, 그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를 구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구원과 영광을 받게 하심이니 가르침을 받는 일을 지켜 굳건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엘리사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 굳건하라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 6장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23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4**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5**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편 113편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5 야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7**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8**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등장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으며, 그의 사역은 엘리사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1~14절)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고침으로써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보입니다.(15~22절) 하나님이 엘리사를 인증해 준 것입니다. 한편 엘리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어로 볼 때 '청년'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청년들이나 타락한 사람들이 엘리사를 대적한 것입니다.(23~2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1~3절)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4~12절)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13~15절) 바울은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16~17절)

다니엘 6장

사자 굴속에서 구원되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왕에 의해 세 총리 중 하나로 임명된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었던 반대파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결정합니다.(1~9절)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간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으로 고소당합니다.(10~14절)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그를 구원하셨습니다.(15~24절) 결국 다리오왕은 다니엘의 야훼 신앙을 인정합니다.(25~28절)

시편 112~113편

(112편)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1절) 그에게 후손과 재물의 복이 따를 것이며,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2~9절) 반면 악인은 한탄하며 소멸을 향해 갈 것입니다.(10절)

(113편) 유월절 축제 때 불렸던 찬송시입니다. 시인은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합니다.(1~3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백성들 곁으로 찾아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4~9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2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일

☐ 열왕기하3 ☐ 데살로니가후서3 ☐ 다니엘7 ☐ 시편114-115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며, 그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람도 보지 못 하고 비도 보지 못 하되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며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야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말씀대로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들을 통해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0**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니엘 7장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23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시편 115편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2**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열왕기하 3장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1~3절)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데, 군사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4~9절) 이 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습니다.(10~12절) 엘리사는 여호사밧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물과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13~20절) 모압 왕은 인신제사까지 하였으나,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21~27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을 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1~5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 바울과 동역자들의 본을 따르기를 권합니다.(6~9절) 무질서하게 살면서 교회 일을 한다는 핑계로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합니다.(10~12절) 선을 행하다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며,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진심으로 권면하길 부탁합니다.(13~18절)

다니엘 7장

다니엘이 본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1~8절) 첫째 사자는 바벨론, 둘째 곰은 바사(메대 포함), 셋째 표범은 헬라, 넷째 쇠로 된 강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또한 심판의 책을 펴시고 짐승(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봅니다.(9~12절) 그리고 인자 같은 이(그리스도)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봅니다.(13~14절) 네 짐승은 멸망할 것이며,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15~28절)

시편 114~115편

(114편) 출애굽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1~2절) 시인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노래하고(3~6절),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7~8절)

(115편) 탄원시입니다. 열방을 다스리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1~3절)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무력하고 죽은 존재들입니다.(4~8절) 모든 산자는 야훼를 찬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9~1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3 능력과 긍휼을 입은 자

월요일

☐ 열왕기하4 ☐ 디모데전서1 ☐ 다니엘8 ☐ 시편116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 과부가 된 한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은혜를 입게 되어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도리어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엎드러졌지만 일으켜 세움을 받은 후에도 여러 날을 앓을 만큼 엄청난 환상과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셨기에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4장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1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3**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1장 나를 능하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은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니엘 8장 그가 내게 말할 때에 깊이 잠들매

18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24**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시편 116편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1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빚을 갚지 못해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한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위기를 넘깁니다.(1~7절) 수넴 여인은 자녀가 없었으나, 자녀를 얻습니다.(8~17절) 그 후 자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납니다.(18~37절) 독을 먹은 제자들을 구하고,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입니다.(38~44절) 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훈을 가르칩니다.(1~2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변론을 일삼는 자들을 경계하고, 구원의 필요성과 영광의 복음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3~11절) 하나님은 핍박자 바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12~14절) 바울에게 임한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15~17절)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18~20절)

다니엘 8장

다니엘은 을래 강변에서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봅니다.(1~14절)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숫염소는 헬라(=알렉산더 제국)를, 숫염소의 뿔은 알렉산더대왕을, 큰 뿔이 꺾인 후 나타나는 네 뿔은 알렉산더 사후 갈라진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뿔 중 하나에서 나오게 된 작은 뿔은 2,300주야 동안 유대인 박해로 유명한 셀류큐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15~27절)

시편 116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평생의 기도를 다짐합니다.(1~2절) 사망과 스올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인을 건지셨습니다.(3~8절)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였습니다.(9~11절) 이어 시인은 두 가지 서원을 드리는데 감사의 제의와 야훼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12~19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4 화요일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 열왕기하5 ☐ 디모데전서2 ☐ 다니엘9 ☐ 시편117-118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장관이었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 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높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5장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디모데전서 2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다니엘 9장 하나님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다

1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7편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라

1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미침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과 앙숙이었던 아람(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 치료를 위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1~6절) 나아만의 치료부탁을 침략의 명분을 위한 술수로 생각한 이스라엘 왕은 분통을 터뜨리는데, 엘리사가 나서서 나아만의 병을 고칩니다.(7~14절) 엘리사는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하였는데, 탐욕에 눈이 먼 그의 종 게하시가 예물의 일부를 챙겼다가 나병에 걸립니다.(15~27절)

디모데전서 2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단정한 삶에 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도록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1~4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5~7절) 이어 공적 예배의 태도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고대의 관습), 내외 면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8~15절)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와 예언입니다. 그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70년이 차면 귀환할 것을 알았습니다.(1~2절)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지난날 지은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자복합니다.(3~14절)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5~19절)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출발시킵니다. 70이레가 지나면, 허물(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이 그치고, 죄(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훼파)가 끝날 것이며, 지성소가 회복될 것입니다.(20~27절)

시편 117~118편

(117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므로, 모든 나라들과 족속은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실을 찬양해야 합니다.(1~2절)
(118편) 두 무리가 서로 화답하며 부르는 제의 시편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1~7절)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8~13절) 대적들이 많지만, 시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것이며,(14~17절) 주의 구원을 간구할 것입니다.(18~29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5 수요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 열왕기하6 ☐ 디모데전서3 ☐ 다니엘10 ☐ 시편119:1-24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성읍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얻는 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함에서 비롯되며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한 첫 날부터 응답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다

14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18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디모데전서 3장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다니엘 10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시편 119편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1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2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열왕기하 6장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아 줍니다.(1~7절) 한편 아람은 엘리사로 인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자,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8~13절) 그러나 하나님이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14~23절) 아람이 다시 군사를 일으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24~33절)

디모데전서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당시 감독은 여러 가정교회들을 섬기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거짓 교훈에 맞서 성도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고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1~7절) 집사의 경우도 감독의 기준에 버금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직분을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8~13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14~16절)

다니엘 10장

다니엘은 힛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1절) 고레스 3년은 포로생활 69년째 해입니다. 다니엘은 21일 금식기도를 했는데(2~3절), 환상 가운데 본 세마포 옷을 입은 빛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4~9절)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지만,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 말합니다.(10~17절) 천사는 바사와 헬라의 수호천사와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바사와 헬라의 멸망을 암시합니다.(18~21절)

시편 119편 1~24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로서 시편 1편과 함께 대표적인 토라(율법)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규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복의 기준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1~6절) 죄의 유혹을 이기고 행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7~16절)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며, 말씀을 삶의 즐거움과 충고로 삼아야 합니다.(17~2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6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요일

☐ 열왕기하7 ☐ 디모데전서4 ☐ 다니엘11 ☐ 시편119:25-48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구원으로 이끌지만, 그렇지 않은 반응은 죽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 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네 자신 뿐 아니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을 당부합니다. 배교의 시대에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며,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 때에도 구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2** 그 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디모데전서 4장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니엘 11장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2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시편 119편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25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6**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9**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30**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야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32**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아람군대에 의해 사마리아가 포위된 상황에서 내일이면 일상이 회복된다고 예언하지만 믿지 않습니다.(1~2절) 굶주림으로 인해 적진으로 들어갔던 나병환자들에 의해 아람군대의 퇴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3~10절) 아람군은 하나님이 들려준 병거와 마병 소리에 겁을 먹고 퇴각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과 나병환자들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한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11~20절)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과 미혹의 영이 활개를 칠 것입니다.(1~2절) 거짓교사들은 혼인 금지, 출산 포기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특정 음식에 대한 금지, 구약의 정결법 준수와 같은 잘못된 금욕적 가르침을 강요했습니다.(3~5절) 참된 경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잘못된 가르침)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6~11절) 디모데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12~16절)

다니엘 11장

BC 5세기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헬라제국, 로마의 종말까지 봅니다. 바사는 알렉산더에 의해 패망하였고, 알렉산더 제국은 네 나라로 갈라집니다.(1~4절) 그 중 북방왕조(셀류큐스 왕조, 시리아 지역)와 남방왕조(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5~19절) 북방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패역한 행위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삽니다.(20~35절) 이에 혁명을 일으켜 유대인들이 희생됩니다.(36~45절)

시편 119편 25~48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시인은 현재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25절), 영혼이 눌리는(28절) 고난의 상황에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면, 즐거이 계명들의 길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계명을 행할 것을 다짐합니다.(25~35절) 자신의 마음이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의 의로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주의 율례를 가까이 하며 묵상할 것을 다짐합니다.(36~48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7 마지막 때까지

금요일

☐ 열왕기하8 ☐ 디모데전서5 ☐ 다니엘12 ☐ 시편119:49-72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과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끝까지 이르러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열왕기하 8장 심판 때에도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1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 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칠 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칠 년을 우거하다가 **3** 칠 년이 다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 그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5**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디모데전서 5장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니엘 12장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9**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시편 119편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5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9**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열왕기하 8장

수넴 여인 이야기, 아람 왕위 찬탈, 아합 가문과 결혼한 유다 왕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시 도움을 받습니다.(1~6절)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은 심복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묻게 되는데, 엘리사는 하사엘의 반역과 그로 인해 겪게 될 이스라엘의 고초를 예견합니다.(7~15절) 유다 왕 여호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6~24절) 아하시야도 악한 길을 걷습니다.(25~29절)

디모데전서 5장

질서와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충고합니다.(1~2절) 교회의 주된 돌봄의 대상인 과부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을 줍니다.(3~16절) 참 과부는 60세 이상의 사별한 자이며, 선행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이어 장로에 대한 목회지침과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이 등장합니다.(17~25절) 교회는 질서 있는 사랑, 사랑 있는 질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힛데겔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자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종말이 오면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1~3절) 하나님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고 명하십니다.(4절) 다니엘서는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의 내용으로 끝납니다.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명합니다.(5~13절) 예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49~72절

고난 중에도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으며,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49~56절) 야훼는 시인의 분깃이기에, 그는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하며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57~72절) 고난으로 인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말씀을 지킬 수 있었음을 상기하며 고난의 유익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8 토요일 기약이 이르면 보이시리니

☐ 열왕기하9 ☐ 디모데전서6 ☐ 호세아1 ☐ 시편119:73-96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드러내시려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왕상19:15-16)을 이루시다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2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3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4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5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6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호세아 1장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1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3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85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6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87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88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열왕기하 9장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1~13절) 왕이 될 명분을 얻은 예후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 요양 중에 있는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14~26절) 이로써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단행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야 역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으며,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27~37절)

디모데전서 6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을 더 잘 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1~2절) 거짓 교훈에 유의하고 경건에 유익이 되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돈에 대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3~10절) 이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목회적 교훈을(11~16절), 부자들에게는 탐욕에 대한 경고와 재물의 사용에 관한 권면을 주며(17~19절), 디모데에게는 거짓 교훈에 대한 분별과 진리의 사수를 강조합니다.(20~21절)

호세아 1장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번영했으나,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통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내려,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1~2절)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혼인하여 세 자녀를 낳았는데(3~9절),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됩니다.(10~11절)

시편 119편 73~96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73절) 또한 자신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을 통해, 다른 이들이 기뻐하며 신앙공동체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74~80절) 대적들이 여전히 핍박하는 상황에서, 그는 주의 교훈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81~88절)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지금까지 시인을 살아가게 한 원동력입니다.(89~9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29 주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 열왕기하10 ☐ 디모데후서1 ☐ 호세아2 ☐ 시편119:97-120

죄를 금하는 것이 고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더불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하며,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바알을 멸하였으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다

25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8**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호세아 2장 음란을 제거하라

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101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2**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열왕기하 10장

아합 가문의 패망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제거합니다.(1~11절) 이스르엘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야를 한번에 죽인 예후는 아하시야의 친족도 죽이고 아합 가문의 남은 자와 바알 선지자까지 숙청합니다.(12~27절) 예후는 바알 종교를 심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28~31절)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합니다.(32~36절)

디모데후서 1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사도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1~2절)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디모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3~5절)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 가운데 위축하지 않도록,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부어주신 은사와 능력,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상기시킵니다.(6~8절)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며, 디모데가 교회에 닥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길 촉구합니다.(9~18절)

호세아 2장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소망을 약속하십니다.(1절) 남편(하나님)은 자녀들(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결혼 언약 관계를 파기한 어머니(이스라엘 국가)와 논쟁하라고 명령하면서, 아내에게는 음행을 그치지 않을 경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5절) 하나님은 아내(이스라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다짐합니다.(6~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혼인관계(언약관계)를 공고히 하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14~23절)

시편 119편 97~120절

주의 말씀을 삶의 등과 빛으로 삼습니다. 늘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묵상하고, 지켜 행한 말씀이 시인을 지혜롭게 만듭니다.(97~104편) 103절의 '말씀이 달다'는 미각적인 표현은 말씀이 '어떤 문제든 어려움 없이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지켜 행하기를 맹세하며, 특히 위기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105~112절) 하나님이 선악 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말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113~120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30 율법책을 주고

월요일

☐ 열왕기하11-12 ☐ 디모데후서2 ☐ 호세아3-4 ☐ 시편119:121-144

아달랴가 통치한 6년동안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로 인하여 황폐하여졌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심판하시지만, 다윗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11장 율법책을 주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다

9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10**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12**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디모데후서 2장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호세아 4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1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4**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5**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시편 119편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1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22**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6**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야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127**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8**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열왕기하 11~12장

(11장) 예후의 쿠데타로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해, 남유다에 왕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 틈을 노려 태후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아달랴가 처단되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1~21절)
(12장) 요아스는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고(1~3절), 그는 아달랴 때 바알을 섬기며 방치했던 성전 헌금을 성전 수리에 쓰도록 했습니다.(4~16절) 아람이 침입하자 조공으로 막아낸 요아스는 암살로 생을 마감합니다.(17~21절)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전수라는 소명을 상기시킵니다.(1~2절) 충성된 일꾼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이며, 최선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3~7절) 고난을 이긴 자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며(8~9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11~13절)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교사를 잘 분별하고, 논쟁은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14~19절)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고, 본을 보이며, 온유함과 가르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20~26절)

호세아 3~4장

(3장) 음행을 저지른 고멜을 값을 치르고 찾아온 호세아는 고멜에게 신실할 것을 요청합니다.(1~3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배역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결국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예고합니다.(4~5절)
(4장)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백성은 물론 제사장마저 율법을 버렸습니다.(1~5절) 하나님 없는 번성은 죄가 더하여질 뿐입니다.(6~10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이방 종교와 우상에 빠졌습니다.(11~19절)

시편 119편 121~144절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은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시길 간구합니다.(121~122,134절)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굳게 지키고 있는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 주시길 간구합니다.(123~136절) 대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은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자입니다.(137~141절) 시인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환난 가운데서 주의 계명만이 즐거움이라 고백합니다.(142~144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31 화요일 고통 가운데서의 선택

☐ 열왕기하13 ☐ 디모데후서3 ☐ 호세아5-6 ☐ 시편119:145-176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 아람의 학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그의 백성이 멸절당하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열왕기하 13장 아람 왕의 학대 가운데 야훼께 간구하다

2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4**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므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5**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6**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7**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오십 명과 병거 열 대와 보병 만 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디모데후서 3장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해야 할 것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호세아 6장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시편 119편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5 야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148**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149**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야훼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0**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151**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2**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열왕기하 13장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여로보암의 죄(=종교혼합주의)에서 떠나지 않았으며, 아람의 침략-구원 호소-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사기 패턴이 나타납니다.(1~5절) 그의 아들 요아스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6~13절) 요아스 시대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고, 엘리사는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마지막 예언으로 왕을 테스트 하였고, 믿음이 부족한 요아스는 3번의 승리만을 보장받아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습니다.(14~25절)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말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된 삶의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1~5절) 거짓교사들은 때가 되면 실체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6~9절) 바울의 가르침과 삶의 본보기는 디모데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10~13절)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이 주는 확신 가운데 서야 합니다.(14~17절)

호세아 5~6장

(5장)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일삼은 왕족, 제사장, 백성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1~7절) 예배의 날인 월삭은 우상 섬기는 날로 전락했고, 우상 숭배 중심지인 벤아웬은 전쟁터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8~15절)

(6장)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낫게 하여 주실 것이라 선포합니다.(1~3절) 그들의 회개는 진정성이 결여된 성급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4~6절) 백성들은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고 제사장조차 악을 행하였습니다.(7~11절)

시편 119편 145~176절

시인은 주의 법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힘써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주의 법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145~168절) 시인은 고난에 처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150,153,157,161절) 고난은 그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였으며, 그는 주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택하였고, 주의 법을 노래하며 즐거워하였고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169~17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 삼위 하나님에 대해
-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지구역 나눔

1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찬양하기

-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에베소서 6장 10절~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안에서 보낸 옥중서신으로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가르칩니다. 싸움은 영적인 싸움 즉 성도들은 마귀의 간계에 대하여 싸우는 영적 전투임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부터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영적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서신을 썼을지 상상하며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신앙생활 하면서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득과 실을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삶을 돌아 보았을때 전신갑주를 전부 취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적어 봅시다.

적용과 나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과 진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사도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혈과육을 지닌 이 세상의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2.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기도합시다.

2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 찬양하기

- 216장 성자의 귀한 몸
-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골로새서1장 1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며 에베소에서 전도했던 에바 브라가 회심하여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1장7절에서는 에바브라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칭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된 에바브라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단에 대해 경계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1:3-6)

2. 사도바울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1:9-12)

적용과 나눔 사도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자라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관찰과 묵상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1:14)

2.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골1:25)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 다지기

사도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의 열매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요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합시다.

3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찬양하기

- 180장(통168) 하나님의 나팔 소리
- 289장(통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기까지 첫 번째 편지 이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 교회 안에 있던 문제가 잠잠해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면서 교인들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또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3절)

적용과 나눔 ①신앙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성장했던 과정을 떠올리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①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려운 상황으로 힘이 들 수 있지만 믿음이 성장될 기회로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줍시다. 서로를 보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②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찰과 묵상

이어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유로 환난중에 있는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6-7절)

① (6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 )

②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 ) 하나님의 공의시니...

적용과 나눔 ①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에 상응한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의 때(고통의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난의 때 어떻게 해왔는지, 특별히 환난의 때를 가져오게 만든 대상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이야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②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지만 내 손으로 갚고 싶고 내 눈으로 그 고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서로에게 나눠보세요.

말씀 다지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은 필연적입니다. 그 시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시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의 처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서로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내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소서.

2.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범죄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소서.

지구역 나눔

4과 불신앙, 불순종의 시대의 한 여인의 믿음

하나님 찬양하기

-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이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넴에서 매우 부유한 늙은 남편과 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베풀며, 작은방을 하나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었는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자녀를 얻게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녀는 아이가 죽자, 이전에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을 떠올리며, 엘리사를 찾아갔고 결국 아이는 엘리야때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 가운데에 있었기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기근이 임했을 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나요?(1절) 그 여인은 어떻게 하나요?(2절)

2.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1절)

적용과 나눔 1. 삶의 기근(어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나눠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2. 예수님의 부활, 즉 죄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일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관찰과 묵상

1. 기근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나요? (3절)

2.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3절) 그랬을 때 누가 왕과 그 여인사이에서 역할을 하나요?(4-6절)

적용과 나눔 1. 순종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나요? 그 때 어떻게 반응(대처) 하였나요?

2. 하나님의 사람(목회자, 지구역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말씀 다지기

수넴 여인은 부활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근의 때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여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순종 후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른 구역원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존 헤론 선교사(John W. Heron 1856~1890)(한국체류 1885-1890)(2)

(7)존 헤론은 조선 선교사로 가기로 굳게 결심

주변의 반대가 심할수록 존 헤론의 마음은 조선을 향해 불타올랐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멀리 떨어진 미지의 나라, 존재감조차 희미했던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결정이었다. 조선에 선교사 파송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레데릭 마퀸드는 1884년 2월에 유산으로 받은 5천 달러를 조선 선교에 써 달라고 기부하고 그 외 이름 없는 기증자들 이 앞다투어 헌금하여 조선 선교의 틀이 짜여져 갔다.(아! 주님!)

존 헤론은 조선에 선교사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얼마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에 그를 "장로교파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했다. 그리곤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존은 빨리 가기를 원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선교 본부는 조선에 선교사로 가더라도 바로 가지 밀고 일본에 머물러 정세를 살펴보라는 것이었다. 존 헤론은 미국 장로교 소속으로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아내와 신혼 여행하듯 한반도를 향해 출발했다. 1884년 그는 일본에 도착하여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함께 4월 5일 인천에 왔다가 국내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으로 돌아갔었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1885년 6월 21일 인천(제물포)에 도착했다. 조선의 최초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존 헤론은 언더우드보다 2개월 늦게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도착했다. 그의 나이 29세 약관의 나이였다.

(8)제중원 2대 원장이 되다.

존 헤론은 1856년 영국 더비셔주에서 태어났다. 14세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존 헤론은 1870년 미국 테네시주의 테네시주립대학교 의과대학과 뉴욕종합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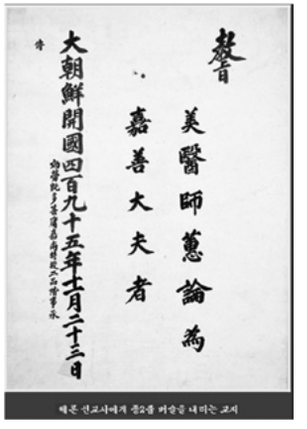

그림 고종황제가 헤론에게 내린 종2품 벼슬고지

의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중 부흥회에 참석하여 강한 성령 체험을 하였고, "이제 준비되었으니 땅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9월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교잡지를 읽던 중, 이수정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읽게 되었고,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고 미국 북장로교 최초의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게 되었다. 일본에서 2개월 동안 이수정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언더우드보다 2개월 늦게 조선에 도착하였다.

조선에 도착한 헤론은 의료사역과 문서사역을 시작하였다.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와 함께 광혜원(제중원 전신)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여 광혜원 2대 원장과 고종 황제의 시 의가 되었다. 또한 왕족과 양반 계급을 위한 광혜원을 제중원으로 바꾸어 의료혜택이 일반 백성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9)기독교문서사역에 힘쓰다

존 헤론 선교사는 언더우드, 올링거 선교사와 함께 '조선성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를 창설해 의료사역 뿐만 아니라 기독교문서사역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수많은 초기 한국교회 전도문서들이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1887년에는 성경번역상임위원회의 번역위원을 역임하며 낮에는 병원 의사로, 밤에는 성경번역으로 이 땅을 섬겼다.

존 헤론에게 의술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소명은 단순히 의학 기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10)주님의 부르심을 받다

존 헤론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보배롭게 여긴 선교사였다. 조

선 땅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었다.

그림 양화진 헤론 선교사의 묘

1890년 여름, 선교사들이 더위를 피해 남한산성에서 재충전하는 시기에 존 헤론은 휴가일정을 줄여서 서울에 돌아와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감염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조산 사람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질로 쓰러지고 말았다. 가족들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환자를 돌보기 위해 존 헤론이 먼저 서울에 왔고, 그때까지 남한산성에서 휴가 중이던 아내와 딸 둘은 존 헤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남한산성에서 밤새도록 가마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내와 두 딸과 친구들에게 유언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소"라고 말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조선사람들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라고 유언하고, 1890년 7월 26일 34세의 나이로 조선에 온지 5년만에 소천하셨다.

(11)아내에게 조선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다.

임종을 지키는 아내에게, 아내 손을 붙잡고 "내가 죽더러도 조선을 떠나지 말아 주세요. 계속 복음을 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였고 한다. 아내 해티는 남편의 친구였던 총각 선교사 게일과 재혼하여 두 딸과 함께 남편의 유언대로 조선을 떠나지 않고 선교사역을 감당하였다.

미국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모교 교수 요원으로 예정되어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존 헤론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이 이 땅에 뿌려졌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들의 헌신 뒤에는 이 땅과 이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존 헤론은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였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은상철 장로)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

기도노트 예배와 성경읽기를 하며 주신 기도제목들을 적어보세요